

국립목포해양대, 국립인천대와 통합하나

교수·학생·동문 등 44% “통합 찬성”... ‘탈 지역’ 선택 파장 예고 인천대와 복수학위제 운영 등 친밀...해양대 유치 ‘인천의 숙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대학 내 정책 공모를 통해 인천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목포해양대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이 더 가속화되자 최근 대학 미래 생존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을 공모해 투표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이 3차 투표까지 한 결과 국립인천대와 통합안(지지율 44%)이 1위를 차지했다.

대학 내부 혁신과 목포대와 통합안 지지율은 29.93%로 2위에 그쳤다.

국립 중화대학인 인천대와 통합할 경우 대학이 수도권에 진입하게 돼 학생을 안정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고 대학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전략으로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통합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대학 구성원들이 사실상 탈지역을 선택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대와 통합해 일반 학부는 사라지고 해사대만 목포에 남을 경우 지역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두 대학의 설립 요건이 달라 통합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목포해양대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미래생존전략을 수립해 구체적인 대학 통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대와 목포해양대는 2018년 국내 복수학위제 운영 등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해양 관련 대학 설립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서해안 거점도시인 인천시는 해양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동안 해양대학 설립에 나서기도 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은 취임과 더불어 해양대·수산대 유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이들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인천시와 한국해양대는 2010년 수도권 해양·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천에 제2캠퍼스 설립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대가 목포해양대와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2022년도 취업률 85%를 기록한 목포해양대의

향해 등과 관련된 해사대의 경우 2023학년도 경쟁률이 수시와 정시 모두 4대 1을 넘었다.

그러나 해양공대의 경우 수시는 2.29대 1, 정시는 미달이었다.

직장인이 지원할 수 있는 융합과정도 정시와 수시 모두 미달하는 등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과 동문 등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통합의 불확실성도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정책 과제로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목포대 송하철 총장과 전남도립대 조명래 총장은 지난 1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대학은 모든 통합 절차를 2025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로” 광주 북구 ‘분위기 띄운다’

이달부터 이벤트·체험활동

광주시 북구가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락을 앞두고 지역사회 지지 분위기를 확산에 나선다.

1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두메습지 관련 이벤트와 체험활동이 펼쳐진다.

먼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북구청 누리집에서 ‘정책 퀴즈 이벤트’가 열린다.

또 3월에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업체 지역 아동(6-7세) 300여명을 대상으로 ‘탐사대’를 모집하고 무등산 일대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며 책을 읽는 ‘우리 가족 사계절 숲 이야기’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사회로 나갑니다
15일 광주 북구 운암동 서영대학교에서 뷰티미용과 학생들이 학사복을 입고 함박 웃음을 지으며 졸업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교통 지옥’ 첨단 쌍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내달 161면 오픈 예정

다음 달 ‘교통 지옥’ 첨단지구에 쌍암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완성돼 공영주차장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3월 중 쌍암근린공원(광산구 쌍암동 653-1) 14만 7962㎡ 공원 부지 중 3160㎡ 부지에 총 161면의 공영 지하주차장이 완공될 전망이다이라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쌍암근린공원 인근에 315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열어 사업 추진 주체 및 시공사 측에 주차장 조성 및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기존 공영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

지상 87면, 지하 74면으로 주차면수를 늘려 공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시공사는 39억 6000만원(지상 4억 7000만원, 지하 34억 9000만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시 예산은 별도로 투입되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는 사업 추진 주체인 롯데쇼핑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부지를 취득할 계획이다.

한편 준공과 별개로 주차장 오픈 일정과 유·무료 여부 등은 자치구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또 승소했지만...

광주지법 “미쓰비시중, 피해자 등 15명에 1900만~1억 지급”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에게 상속분에 따라 1900만~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광주·강진·고흥·곡성·나주·구례·순천

등지에서 출생해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철공소·항공기제작소·고배조선소·요코하마조선소 등지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의 배우자·자녀·조카 등이다.

피해자들은 1945년 급여 환분 받지 못한 채 모두 귀국했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생존피해자 이영순씨가 참여했지만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2019년 7월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다.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과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소멸했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과거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멸 시효도 강제동원 피해의 보상 가능성이 확인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고영목씨의 아들 재영씨는 “아버지는 22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힘들게 일했고 손을 다쳐서 평생 고생하셨다”며 “시민단체,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34년’ 된 광주 남구 월산동행복센터 내년 재건축

34년된 광주 남구 월산동행정복지센터(31-2번지) 청사가 재건축된다.

1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에서 가장 오래된 행정복지센터인 월산동행정복지센터가 내년 7월 본격 재건축 공사에 나선다.

센터는 1992년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694㎡)로 세워졌다. 지하에는 문서고,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과 주민자치회 사무국, 민방위창고가 있으며 3층에는 회의실이 마련돼 있다.

월산동 인구는 총 8494명이며 센터 방문 숫자는 하루 평균 225명, 연 8만 2135명이지만 34년 된 건물인만큼 누수가 잦고 프로그램실이 비좁아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남구는 총 53억 5000만원을 들여 올해 2월부터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현재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청사를 올릴 계획이다.

새로 지어지는 청사는 현 청사 면적(1105.5㎡)보다 694.6㎡ 넓게 설계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사의 면적이 넓어지고 앞서 예비군 동대가 이용하던 지상 2층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 복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